

중도일보

1951년 창간 中都日報 joongdo.co.kr

'세종 싱싱장터 팜투어 식생활 교육장 된다'

농식품부,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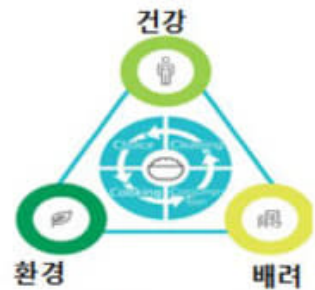
사람 중심, 농업 환경 공익 가치 확산 등 4대 전략 12대 과제 담아

오주영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0-01-29 11:00

※ 참고 :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의미

- '지속가능한 식생활'이란 식품의 순환 과정 속에서 국민의 건강 뿐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식생활을 의미하며,
- 식생활을 건강(영양) 차원을 넘어 농업·환경·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



세종의 로컬푸드 직매장인 '싱싱장터'와 연계된 싱싱문화관을 조성해 로컬푸드 식당, 조리실습실, 교육장 등을 두고 팜투어를 병행하는 식생활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함께하는 농업, 건강한 국민,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골자로 한 제3차(2020~2024)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식생활 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 계획이다.

제3차 계획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4대 전략, 12개 과제가 담겼다.

기본계획은 환경·건강·배려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사람 중심', '농업·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 등 농정비전과의 연계를 강화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확산하기 위해 농업 환경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교육과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과 영양안전망 확충을 위한 농식품 지원과 식생활교육 연계를 확대기로 했다.

관련 교육 추진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 내실화와 성과 제고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교육 대상별로 지역의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농업·환경의 가치를 이해하는 식생활 실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고령자 임산부 등)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농식품 지원정책과 교육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먹거리 기본권(Right to Food)'이란 경제적 형평과 사회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양·질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먹거리를 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 단위 식생활교육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 기초지자체 공모사업을 도입,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성과 측정을 위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교육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환류를 실시하는 등 교육 성과를 개선할 예정이다.

세부 추진 과제를 보면 '사람 중심 교육'으로 취약계층(저소득층 고령자 등), 영유아, 초중고 학생, 군장병,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삶을 고려한 식생활 교육이 전면 실시 된다.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농식품 지원 정책과 식생활교육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 장병, 직장인 등에게는 '찾아가는 식생활교육'으로 식생활 유지 관리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농업 환경 가치 확산'을 위해선 농업 환경이 갖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이론·텃밭가꾸기·생산현장체험이 연계된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우수 식생활 교육 체험공간 지정을 확대(264개소 → 300개소)하고, 도시 텃밭 조성 등을 통해 도시 속에서 농업 환경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자원 활용' 교육도 다양화 된다.

세종시의 싱싱장터와 같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생활 SOC 등 지역 공유공간을 활용한 교육과 전통 식생활 교육을 확대해 장기적인 농식품 소비기반 조성에 전력할 방침이다.

'실천기반'도 강화 된다.

식생활교육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종합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 확산과 교육 콘텐츠 개발, 보육 교육기관 중심 플랫폼 이용 활성화 및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 들어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제1차(2010~2014)와 제2차(2015~2019) 기본계획을 통해 식생활교육 정책 기반 구축과 전국적인 확산 분위기 조성이 됐다"며 "앞으로는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평가·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 확산과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 jy8355@

프린트

취소